



인형의  
꿈꾸다



경운박물관



DOLLS  
DREAM  
FASHION  
FANTASY

2016년 봄기획전  
인형 꿈꾸다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주 최 경운회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주 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전시주관 관 장 장경수

책임기획 부관장 최(박)경자

기획진행 학예사 이경희 이윤경 김윤희

전시진행 구복순 설영자 전경숙 이영희 김명희 김귀란 김혜진 정순은 이해숙

이혜원 강영서 김현순 공희숙 이숙명 최의려 이은경 김종민

도록편집 배방훈 신성해 이계호 호원숙 김혜정

사 진 하성미

큐레이팅 김영삼

발 행 인 장경수

발 행 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내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kwmuseum.org

도록디자인 · 제작 디자인이즘 02-720-0771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봄기획전



인형 꿈꾸다

2016.4.19 - 9.7

## 인형들의 패션 판타지

연분홍빛으로 가득한 봄입니다.

이번 봄 경운박물관은 패션의 나라 프랑스로부터 온 100여개의 인형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130여년 전의 패션을 보여 주는 전시를 합니다. 화려하나 다소 곱한 매무새로 여러분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패션의 중심이었고, 파리의 패션은 모든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17-18세기경 패션의 전령사로 인형에 옷을 입혀 유럽 각국에 보내져 많은 유럽여성들을 기쁘게 했던 모드 인형은 패션 전파의 효시였습니다. 모드 인형은 점차 사라졌으나, 산업혁명 후 인쇄 매체의 발달로 패션에 관련된 서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시는 몇 개의 잡지 중 특별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발매되었던 '라 모드 일뤼스트레' (La Mode Illustrée)에 나온 여인의 복식을 소개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즐기고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나, 인쇄 매체의 그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개성을 살려 직접 옷감으로 부분 부분을 제작해 도드라진 입체인형으로 제작했던 프랑스 여인들, 그림 위를 섬세하게 치장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성취를 이루었던 프랑스 여인들, 이것이 아마도 모드 인형에 옷을 입혔던 그들의 후예답게 아름다운 그림 패션 인형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100여 개의 프레임 안에 들어 있는 패션 인형들은 유명 디자이너는 아니어도

고운 옷감으로, 섬세한 손길로, 또는 빛나는 아이디어로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패션의 나라 프랑스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짓고 남은 작은 옷감을 자르고 꿰매고 꾸미면서 느꼈을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은 우리나라 여성이 자투리천으로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 때의 감성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의 패션 인형으로 수교 당시 프랑스 패션의 역사를 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시를 계기로 양국간의 보다 많은 분야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인형 수집가이신 동문 김인숙님(46회)께서 십 수년 간 모아 오신 인형들의 전시를 경운박물관에 허락해 주심에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과 성의를 다해 전시를 이루게 해 준 경운박물관 위원님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이 전시가 어린이에게는 꿈과 판타지를, 후학들에게는 패션연구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과 공감을 듬뿍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 경 수

경운박물관장

## 꿈꾸던 인형들 깨어나다

내가 어릴 때는 일정시대였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당시 세룰로이드(플라스틱의 전신)로 만들어진 파란 눈의 큐피 인형이다.

당시 큐피들은 그냥 맨살인형으로서 발과 손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어딜 가나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녔으며 잘 때도 함께 잤다. 가끔 외할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신 후 남은 옷감이 있으면 큐피 몸에 줄줄 감아주던 생각이 난다.

해방 후 그리고 곧 6.25 전쟁이 터져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다니던 시절 인형 놀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인형에 대한 갈망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나보다.

경기여고 1년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를 즐겁게 해 준 것은 나무로 만든 '고깨시'라는 인형이다.

일본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고깨시 인형들이 있었는데 여행 후나 수학여행을 가면 고깨시 인형을 꼭 샀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때 나의 분신과 같았던 고깨시 인형들을 나와 가깝게 지내던 옥중언니에게 물려주고 떠났다.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아이가 인형을 영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오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관심을 갖고 내가 사주는 인형들은 만지지도 않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하는 La Mode Illustrée 액자 인형들은 지난 10년 이상 모은 것들이다. La Mode Illustrée는 1859년부터 1914년까지 불란서 파리에서 일요일마다 출간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패션 잡지였다. 잡지 속에는 매주 여성들의 패션 그림이 부록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당시의 우아한 이브닝 가운, 모닝 가

운, 웨딩 앙상블, 어린아이 옷과 구두, 모자, 파라솔 같은 여성 장신구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다.

당시의 많은 여성들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집 장식에 사용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는 다양한 패션 액자는 여성들이 그 패션 그림 위에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입체적으로 드레스를 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패션으로 장식을 한 것이다.

일설에는 집 장식용으로도 사용하였으나 손재주가 있는 재봉사들은 자기가 만든 액자를 여성 양장점에 제시하여 본인의 기술을 인정받고 직장을 구하는 소위 지금의 이력서로 사용하였다고도 한다.

액자 속의 주인공들이 입은 옷은 물론 머리 모양, 주변 장신구 등을 보면 당시 여인들의 생활 방식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드디어 불란서 인형 속 여인들이 경운박물관을 통하여 한국에 첫 인사를 올린다. 나의 어린 시절 부터의 인형에 대한 사랑이 불란서의 패션인형 수집으로까지 발전하여 많은 인형액자가 모이게 되었다. 혼자만 즐기기보다는 동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장경수 경운박물관 관장 이하 여러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김 인 숙 (46회)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인형이 말을 걸어오고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새로움을 향한 꿈과 상상력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 인형의 꿈







그 풍성한 치마 주름은 구름 같았죠.

레이스 장식은 섬세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머리카락의 구불거림은 장미꽃 같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장미꽃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장미꽃 향기





LA MODE ILLUSTRÉE

BUREAUX DU JOURNAL 55 RUE JACOB PARIS.

Vendues de M<sup>me</sup> LEWIS rue de Provence 52











인형이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결혼을 꿈꾸게 해주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은하수를 건너는 꿈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 순백의 드레스









뜰에는 작은 꽃들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수선화, 히아신스, 크로커스

그 꽃들은 인형의 옷 속으로 들어가

작은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 꽃들의 웃음소리











서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다가  
우정이 싹틔었습니다.  
치마자락이 부딪혀 스칠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 아름다운 우정

















## 동화 속 나라

인형들의 나라에 날아가는 꿈을 꾸었죠.

동화 속의 나라 같았죠.

미움도 다툼도 없었고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칭찬의 말들만 있었죠.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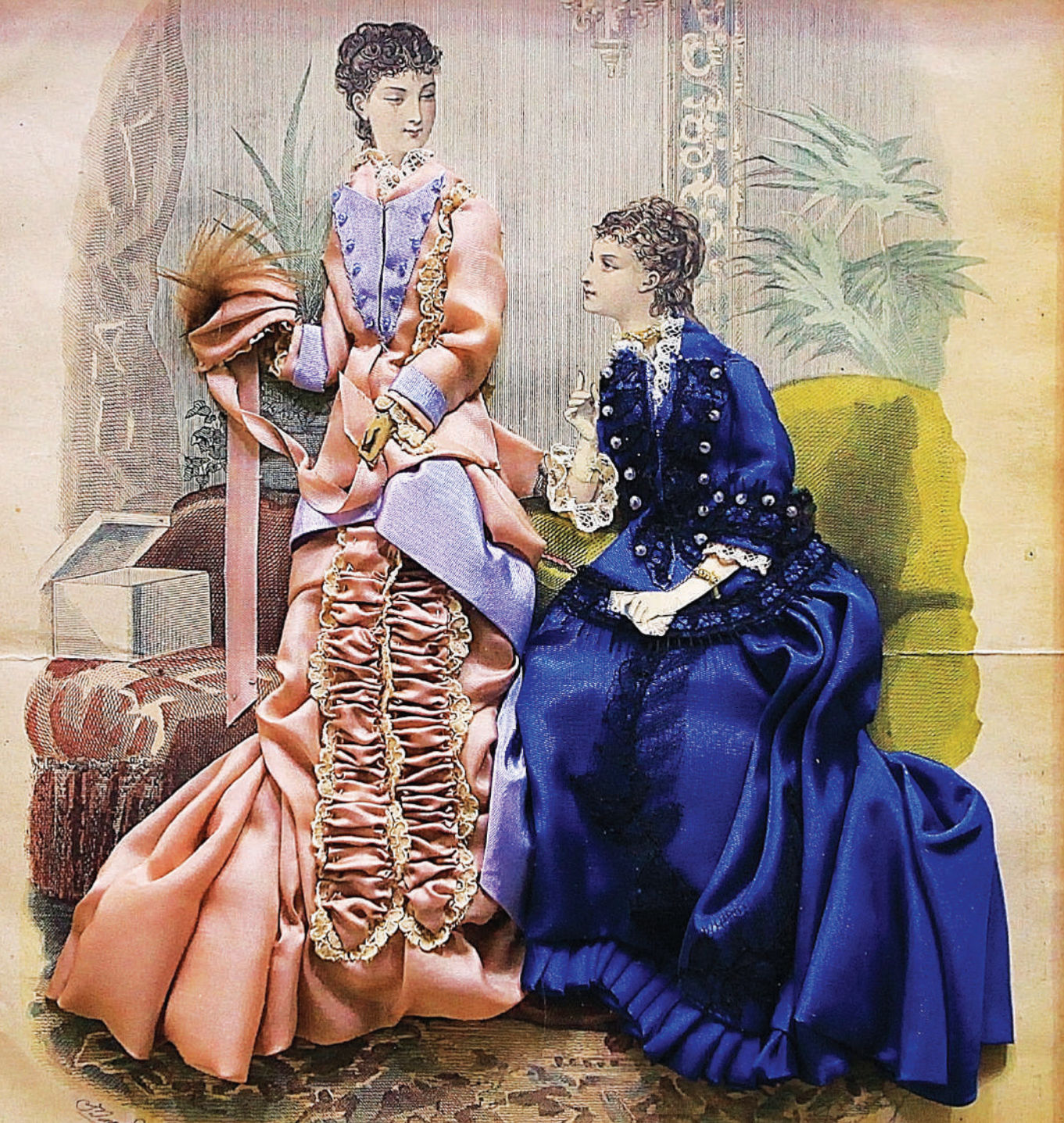












## 인형과 패션

김 영 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이번에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의상과 도자기·종이 등의 다채로운 재료를 이용한 인형들, 그리고 이들을 꾸며주는 오브제들은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 초 아르누보 시대까지의 근세와 근대를 아우르는 시대에, 당시 여성들이 향유한 복식의 경향과 그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종류의 패션 인형들을 한 자리에서 접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점차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현 시대의 패션 환경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가치와 신념, 가치관을 투영하고 더 나아가 아련한 판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패션 돌(Fashion doll)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의 맥락과 함께하는 복식의 깊은 가치를 곰곰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따스한 4월에 만개한 봄꽃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에 버금가는 정서적 여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DOLLS 인형은 아이를 위한 장난감 혹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외형을 모방한 오브제이다. 또한 인형은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서, 당대의 시대적 정서를 표출하고 인간의 감성을 투영하며, 복식의 재현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으로 실용적 이거나 혹은 장식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형은 서유럽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당대 유행하였던 복식을 전파하는 도구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더해졌으며, 바야흐로 ‘패션 돌(Fashion doll)’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패션 돌은 'Pandoras', 'French babies' 또는 'Joined babies'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되며 유럽사회에 전파되었다. 특히, 인쇄매체가 없던 17~18세기에는 유럽 패션을 이끌어가던 프랑스의 모드(Mode)를 효과적으로 각국에 전파하는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DREAM 아이의 꿈, 소녀의 꿈, 여성으로서의 꿈이 투영되었던 패션돌은 복식을 매개로 한 인간 욕망의 표현뿐만 아니라 당시의 패션에서 추구하였던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전시 ‘인형 꿈꾸다 - Dolls Dream Fashion Fantasy’는 기존의 패션 돌에 더하여 조금 더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La Mode Illustrée’ 라는 18세기의 패션 잡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판화에 부조로 옷을 입히는 반 부조 형태의 패션 돌을 탄생시켰다. 잡지의 표지인 칼라 판화는 초기에는 액자에 끼워져 벽을 장식하다가, 점차 의복을 만들고 남은 천을 활용하여 판화 위에 그려진 복식의 디테일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취미가 발전하여 하나의 예술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잡지에 게재된 최신유행의 패션은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열광시켰고, 온 가족이 공유했던 잡지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때로 그 위에 덧붙여진 실물작업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 감성적 규범과 마음가짐, 그리고 이상적인 꿈을 간접적으로 계승해 왔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도 폴로네즈(polonaise)드레스를 장식하는 프릴과 레이스의 조화, 자수 장식, 목걸이와 머리장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한 묘사는 실재(實在)보다 더욱 실제(實際)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당시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꿈과 열망이 생생히 전해진다.

FASHION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 크기의 1/2~1/3 정도로 제작된 패션 돌은 패션 잡지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에도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복식판화)로 패션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유행의 하향전파를 통한 복식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침체된 프랑스의 패션 산업 환경에서, 오프꾸뛰르 디자인이 정교하게 미니어처로 제작된 ‘Théâtre de la Mode’(1945) 패션 돌 전시는 오트쿠튀르가 전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패션 돌에 대한 수요와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듯하였으나 1950년대에 마텔(Mattel)사가 개발한 바비(Barbie) 인형의 인기는 다시 인형을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였다. 바비는 오늘날 유행 및 사회상의 반영, 과거 의상의 재현 또는 수집가들을 위한 제품으로서 그 쓰임이 보다 다양화되는 현대의 패션 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FANTASY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패션 돌은 변화해 왔고, 이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과거 시대의 환상을 현재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과거의 시대상이 반영된 패션 돌의 의상 및 장신구는 현대에 이르러 서양 복식사 연구의 사료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본 전시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Charles-Roux, E., Lottman, H. R., Garfinkel, S., & Gasc, N. (2002). *Théâtre de la Mode: Fashion Dolls: The Survival of Haute Couture* (2nd ed.). Vancouver: Palmer / Pletsch Publishing.

Chung, H. S. & Koh, J. W. (2002). A study on the Changing Roles of Fashion Doll. *Chung-Ang Journal of Human Ecology*, 16, 1-11.

Lee, K. H. (2004). A Study about the Historic Changes of Fashion Delivery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location*, 6(2), 49-62.

Mackrell, A. (1997). An illustrated history of fashion (1st ed.). New York: Costume&Fashion Press.

Park, H. M. & Jung, J. W. (2007). A study of sociocultural meaning in dol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 'S Media*, 6(1), 109-129.

Peers, J. (2004). *The Fashion Doll : From Bébé Jumeau to Barbie* (1st ed.). New York: Oxford.

Tortora, P. G. & Eubank, k. (1998). *Survey of historic costume* (3r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Une revue de mode du XIXème siècle. (n.d.). Retrieved March 16, 2016, from <http://histgeo.discipline.ac-lille.fr/numerique/traam/traam2-domain-complet.pdf>

전시 내용

책자 이름	액자 (점)	크기(가로x세로)
LA MODE ILLUSTRÉE	40	24 x 32.5
JOURNAL DES DEMOISELLES	4	20 x 30
(LA) REVUE DE LA MODE	4	22 x 32
MAGASIN DES DEMOISELLES	1	
LA FEMME ET LA FAMILLE	1	
MUSÉE DES FAMILLES	1	
LA MODE FRANÇAISE	1	
LES NOUVEAUTÉS PARISIENNES	1	
LE MONITEUR DE LA MODE	1	
출처미상	28	
인형	26	

이번 전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Mattel Korea의 전시영 부장  
서탁옥(51회) 동문 유가족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